

LUXURY

ARTIST

아티스트 마이클 딘

Poetic Sculpture

바라캇 컨템포러리에서 현대미술가 마이클 딘의 전시가 열린다.

비바람에 의해 깎이고 부서진 콘크리트 덩어리와 철골,
암호 같은 책 몽치, 버려진 비닐봉지와 자물쇠가 몽뚱그려진 조각들까지.
마치 '아름다움의 저편을 보라'고 주문하는 듯하다. 생각을 붙잡는 도구로서
언어 그리고 자연의 풍파와 시간을 그대로 담아내는 거친 재료를 엮어내며
독특한 작업 세계를 이어가고 있는 마이클 딘과의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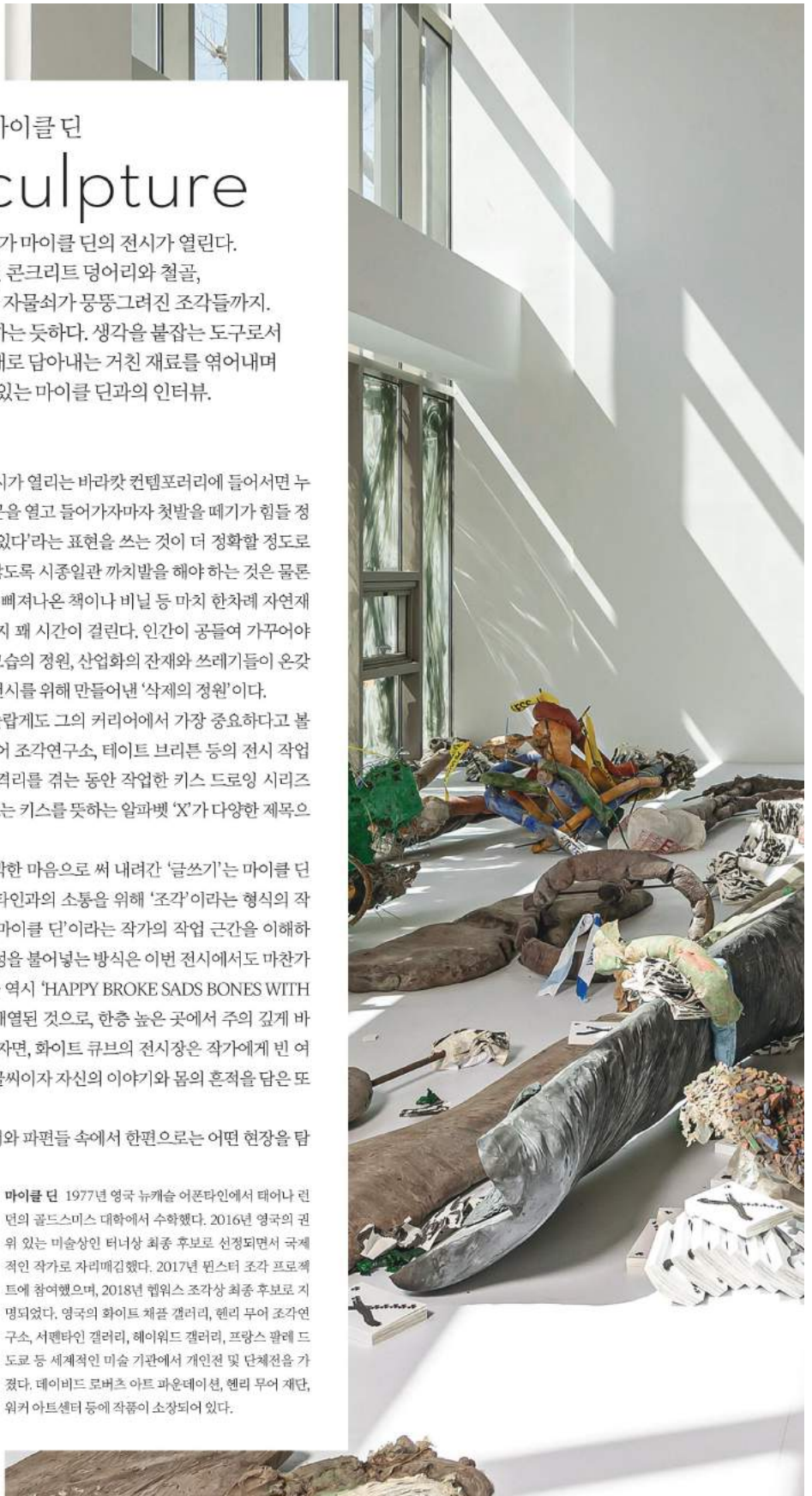
마이클 딘의 <삭제의 정원 Garden of Delete> 전시가 열리는 바라캇 컨템포러리에 들어서면 누구나 당혹스러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육중한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첫발을 떼기가 힘들 정도로 바닥에 작품들이 펼쳐져 있는데, '널브러져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더 정확할 정도로 그 모양새가 처참하다. 작품을 받거나 건드리지 않도록 시종일관 까치발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녹이 슨 철근과 풍화된 콘크리트, 그 사이로 빠져나온 책이나 비닐 등 마치 한차례 자연재해가 휩쓸고 간 듯한 모습에 상황 파악을 하기까지 꽤 시간이 걸린다. 인간이 공들여 가꾸어야 하는 아름다운 정원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듯한 모습의 정원, 산업화의 잔재와 쓰레기들이 온갖 풍파를 겪은 듯한 이곳이 바로 마이클 딘이 이번 전시를 위해 만들어낸 '삭제의 정원'이다. 갤러리 공간 1층 전면에 누워 있는(!) 작품들은 놀랍게도 그의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윈스터 조각 프로젝트를 비롯해 헨리 무어 조각연구소, 테이트 브리튼 등의 전시 작업 일부를 망라한 것이다. 더불어 작가가 한국에서 격리를 겪는 동안 작업한 키스 드로잉 시리즈 'Unfucking Titled(Quarantine Series)'와 삭제 또는 키스를 뜻하는 알파벳 'X'가 다양한 제목으로 변주된 새로운 조각 작품들도 함께 선보인다.

어린 시절, 흘러가는 자연의 풍경을 붙잡고자 절박한 마음으로 써 내려간 '글쓰기'는 마이클 딘이라는 작가의 출발점이다. 사적인 글쓰기는 곧 타인과의 소통을 위해 '조각'이라는 형식의 작품으로 치환되었는데, 이런 작업 방식이야말로 '마이클 딘'이라는 작가의 작업 근간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언어나 텍스트에 물성을 붙여넣는 방식은 이번 전시에서도 마찬가지다. 전시장에 누워놓은 산업폐기물 같은 조각들 역시 'HAPPY BROKE SADS BONES WITH STICKS AND STONES' 같은 단어의 형상으로 배열된 것으로, 한층 높은 곳에서 주의 깊게 바라보아야 그 형상을 겨우 발견해낼 수 있다. 말하자면, 화이트 큐브의 전시장은 작가에게 빈 여백의 노트이며, 조각 하나 하나는 그가 써 내려간 글씨이자 자신의 이야기와 몸의 흔적을 담은 또 하나의 분신이기도 하다.

신선한 것은, 마이클 딘이 흠뻑러놓은 수많은 단서와 파편들 속에서 한편으로는 어떤 현장을 탐사하는 고고학자가 된 듯한 심정을 느껴볼 수

있다는 점이다. 그의 작품들을 뛰어넘는 순간 유리 큐브에 갇힌 '뒤상의 변기'를 볼 때와 같은 아이러니하고 허망한 기분은 산뜻하게 사라진다. 'SAKE', 'FUCK' 같은 노란 테이프 위의 단어, 그리고 자물쇠의 극적, 그리고 누워 있는 조각들을 보면 자유롭게 상상의 나라가 펼쳐진다. 이것이 바로 "예술은 완성된 것이며, 관람객은 그걸 이해해야만 하는 구도가

마이클 딘 1977년 영국 뉴캐슬 어폰타인에서 태어나 런던의 골드스미스 대학에서 수학했다. 2016년 영국의 권위 있는 미술상인 터너상 최종 후보로 선정되면서 국제적인 작가로 자리매김했다. 2017년 윈스터 조각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며, 2018년 험프리스 조각상 최종 후보로 지명되었다. 영국의 화이트 체프 갤러리, 헨리 무어 조각연구소, 서펜타인 갤러리, 헤이워드 갤러리, 프랑스 팔레 드 도로 등 세계적인 미술 기관에서 개인전 및 단체전을 가졌다. 데이비드 로버츠 아트 파운데이션, 헨리 무어 재단, 워커 아트센터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지겨웠다"라고 말하는 마이클 딘의 방식이다. 작품의 파격적인 외양과 자유로운 전시 관람 형태 너머에는 물론 자연과 문명, 그리고 인간의 존재에 대해 누구보다 깊이 사유하는 '마이클 딘'의 흔적이 담겨 있다. 영국 사회의 드러나지 않은 빈곤, 예술의 형식에 대한 비판, 인공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 생존과 소멸, 기억과 망각, 사랑과 영원까지 그가 담아내는 주제는 무한하다.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직접 쓴 시, 해독할 수 없는 문자, 그리고 수많은 재료를 몽뚱그려낸 조각으로 다양하게 발화된다는 점에서 그는 은유와 직유, 생략과 수사에 능수능란한 진정한 시인이랄 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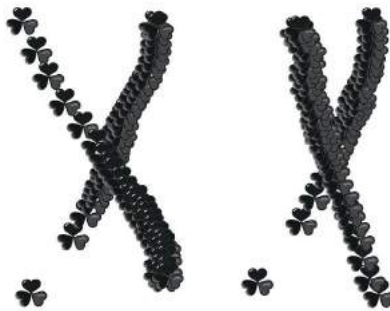
한국에서의 개인전 참석을 위해 2주간의 격리를 끝냈다고 들었다. 작가로서 어떤 시간이었나? 흔히 얘기하듯 작가들이란 세상에 대한 감각을 일깨우기 위해 이미 스스로를 격리시키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이번에 격리를 겪으면서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도 알게 됐다. 좁은 공간에 외롭게 갇혀 있었고, 바깥공기나 태양 빛도 쬐지 못한 채 스스로 내 안에 있는 존재를 마주하면서 명상을 더 열심히 하는 시간을 가졌다. 놀랍도록 힘든 시간이었던 반면, 나를 비취볼 수 있는 생산적인 시간이었기에 의미가 있었던 것 같다.

이번 <삭제의 정원> 전시는 작업실의 야외 정원에 놓인 과거의 작품들을 바라보던 중 착안했다고 들었다. 예술 작품을 야외에 둔다는 게 흔한 일은 아닌데, 왜 작품을 밖에 두었나? 내 작품들이 영국 날씨의 영향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날씨가 작품의 표면이나 전체에 끼치는 영향은 내가 작업실에서 인위적으로 모방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자연만이 가진 힘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 힘이 작품에 자연스럽게 입혀지기를 원했다. 자연현상에 대한 해석에는 정답이 없기에 오롯이 내가 느끼는 것을 거리낌 없이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이다. 이렇듯 내 작업에 담긴 자연의 순환과정을 보며, 마치 자연을 바라볼 때와 같은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당신의 작품은 직접 만져보거나 혹은 작품의 일부인 책을 찢어갈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람객이 적극적으로 작품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예술에 대한 엄숙주의의 반대편에서 있는 것 같다. 그건 내 문화적인 배경 때문에 더 의도된 측면이 있다. 내가 자란 영국의 뉴캐슬 지역은 영국에서 매우 빈곤한 지역이다. 이 지역의 문화는 깨끗하고 질서정연하고, 정확한 세상의 구조에 도전하는 문화라고 볼 수 있다. 이 세계에서는 누구나 아무렇지도 않게 무언가를 만져보고 깨뜨리고, 노래를 부를 수도 있다. 내 작품도 그런 세상에서 부르는 노래 같은 것이다. 한 가지 더 말하자면, 미술관에서 작품을 감상하는 방식은 누구나 다르겠지만 대개 '문화적 엘리트'인 누군가의 목소리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작품 감상의 핵심을 이루는 것 같다. 하지만 내가 살던 세상에

서는 이른바 이런 '마스터'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나는 관람객들이 어떤 문화권에서 왔건 그들이 작품 감상의 중심부에 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작가의 목소리가 아니라 감상하는 사람의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삭제의 정원' 작품을 보면, 영국인 특유의 '아름다운 정원'의 정반대 지점을 구현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파격적이고, 아름다움이 삭제되고, 정돈되지 않은 그런 정원 말이다. 내가 만든 '삭제의 정원'은 인위적으로 제어하거나 통제하는 게 아니라 자연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는 정원이다. '자유'의 관점에서 보자면, 잘 정돈된 정원에서는 사람들의 행동 역시 제약을 받게 되어 있다. 하지만 내가 자란 뉴캐슬의 정원에서는 소리를 지르거나 술을 먹고 떠들거나 바이크를 타거나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다. 정원 얘기를 더 하자면, 작품 속 정원에는 일반적인 정원의 흙이 아닌, 탈산업화 시대의 흙이라 할 수 있는 콘크리트가 쓰였고, 이외에 플라스틱 또는 산업화의 도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과거의 파편도 들어가 있는데, 북마크나 실, 과거에 내가 낸 책 같은 작가로서의 내 존재를 많이 남겨두었다.



<삭제의 정원Garden of Delete> 서울 전시에 앞서 작가가 퍼낸 포켓북의 커버 이미지, 삼성과 구글. 애플의 운영 체제에서 따온 하트 모양을 그래픽으로 활용했다.

콘크리트를 주재료로 사용하는데, 이 재료에 주목하게 된 이유가 있나? 내가 어릴 적 살던 동네는 콘크리트로 만든 건물이 마치 미로처럼 연결되어 있는 독특한 구조의 작은 마을이었다. 경찰들이 드나들기 힘들도록 마을 주민들이 도로표지판을 모조리 떼어놓는 바람에 자주 길을 잃곤 했다. 그래서 화재가 난 차, 혹은 창이 없는 집, 벗겨진 나무처럼 특정한 표식을 보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곤 했다. 이렇게 내가 자란 동네의 사람들은 콘크리트로 만든 집의 표면에 자신들만의 흔적을 남기면서 살았다. 이렇듯 나의 배경이 콘크리트로 만든 도시이기 때문에 콘크리트라는 재

료를 선택하는 것이 자연스러웠고, 무엇보다 쉽게 구할 수 있으면서 저렴했다. 시멘트, 모래에 물을 섞으면 무엇이든 만들 수 있으니까. 내 입장에서 콘크리트는 가장 저렴하게 물리적 세계를 구현할 수 있는 '민주적 도자기democratic ceramic'였던 셈이다. 전봇대나 보도블록, 건축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에는 갖가지 전단지나 썩다 빨은 껌 같은 인간들의 잔해가 쌓이고, 자연이나 환경에 반응하며 시간이 지나면 그 흔적을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나에겐 이렇듯 시간과 언어의 흔적이 축적된 콘크리트가 현대적인 '팔림프세스트palimpsest(원래의 글 일부 또는 전체를 지우고 다시 쓴 고대 문서)'로 느껴진다.

'글쓰기'는 당신 작업의 중요한 출발점이다. 이번 전시에도 여러 가지 타이포그래피와 그래픽이 인쇄된 책이 군데군데 놓여 있는데, 그 내용이 궁금하다. 표지를 언뜻 보면 클로버 같기도 하고, 하트 모양을 겹쳐둔 것 같기도 하다. 클로버를 3가지의 검은색 하트 모양으로 만든 것인데, 각각 애플과 구글, 삼성의 디지털 운영 체제에서 따온 이모지emoji를 사용했다. 검은색은 '마음이 아픈 것broken heart'을 의미한다. 이

글의 내용이나 제목을 이야기하자면, '기억' 혹은 '상실'이 될 것 같다. 여기에 써 있는 암호 같기도 한, 읽을 수 없는 텍스트들은 글쓰기가 어떻게 무언가를 포착하거나 붙잡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읽을 수 없기에 오히려 보는 사람 입장에서 다양한 해석의 자유가 생긴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글쓰기가 모든 작업의 출발점인가? 예외는 없나? 글쓰기는 언제나 내 작품의 시발점이다. 글쓰기가 없다면 글쓰기를 통해 이뤄진 형태나 표현의 양식이 존재할 수 없다. 글쓰기가 나에게 굉장히 개인적인 일인 만큼 관객들이 '글text'을 '형태object'로 만든 내 작품을 감상하면서 저마다 개인적인 경험을 했으면 한다. 글쓰기를 먼저 한 뒤 물리적 재료를 통해서 이 생각을 추상화하게 되면, 조금 더 개방된 형태의 작품으로서 관객에게 다가갈 수 있다. 글쓰기가 없다면 굉장히 공허하고, 기발하기만 한 작품이 나오게 될 거다.

2020년에 이탈리아에서 선보인 <Kiss Emitting Die Odes> 전시, 그리고 이번 전시에서 선보인 'Unfucking Titled'(2021) 시리즈 등 '키스' 연작은 뼈가 그대로 드러나는 엑스레이나 염색체 같아 보이기도 하고, 동양적인 단색화처럼 보이기도 한다. 의도가 궁금하다.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내 생각과 관객이 느끼는 것이 다른, 그런 유쾌한 순간을 좋아한다. 내가 직접 올리브 오일을 바르고 종이에 키스를 한 뒤 그 위에 시멘트 가루를 뿌려서 만든 이번 작품은 '사랑과 죽음'에 대한 시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다. 우리는 모두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키스의 흔적을 남기는데 사용된 '석회암limestone'은 아주 먼 옛날부터 죽은 생명들이 쌓이고 쌓여 화석화가 된 소재다. 이번 작품은 그런 의미에서 '죽음'을 주조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당신의 작품에는 상당 부분 신체가 개입되어 있는 것이 특징인 것 같다. 유독 당신 몸의 움직임이 작품에 많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유는 뭐가? 작품을 만드는 나 자신이나 감상하는 관객 역시 이 세계에 속한 동등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일종의 방식이다. 나는 작품을 통해 관객에게 영감과 자극을 주고, 자신이 존재하는 순간을 감각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나에게 작품은 그 탄생부터 '나의 존재'가 개입되는 것이 중요하다. 작품을 나의 키 높이로 만들고, 거기에 나와 가족들의 손이 주조되어 들어가는 것도 내 작품이 나와 관객 사이의 인간적인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신작들. 설치 작품은 'X EDEN X EDEN (Working Title)'(2021). 뒤에 걸린 일련의 페인팅 작품들은 한국에서의 격리 기간에 작업한 연작으로 'Unfucking Titled (Quarantine Series)'(2021).



X Care (Working Title)(2021)



X X X (Working Title)(2021)

친밀함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작품을 통해 여러 사회 비판적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정치·사회적 상황 역시 중요한 관심사인가? 나는 예술이 특정한 슬로건이 되거나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기회가 생긴다면, 비판을 하기보다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 터너상 후보 작품의 경우 터너상의 후보가 되면, 나의 작품이 언론에 인용되고 보여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당시 영국의 빈곤율을 뜻하는 제목을 달았던 것이다. 내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이 나의 작품을 통해 '부의 양극화'에 대해 커뮤니케이션하게끔 하는 교육적인 순간을 만들었던 것이다. 소위 사실을 전달하려고 한 것뿐이다. ●

글 박지혜(에스트 에디터)

사진 이우경 기자 | 취재 협조 바라캇 컨템포러리(barakatcontemporary.com)